

미국장로교(PCUSA) 알래스카/서북미 대회 한인교회 협의회 성명서
Korean Presbyterian Council, the Synod of the Alaska/Northwest, PCUSA.

1885년 복음의 불모지인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 고난의 역사가운데 함께 아픔을 나눈 미국장로교(PCUSA)가 최근 동성결혼을 인정함으로 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은 많은 우려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은 목회자의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 건물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구도 이런 사항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장로교 알래스카/서북미 대회 소속 한인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동성결혼이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본 대회 소속 한인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 본 대회 소속 한인교회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를 거부하며 교회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5. 우리들이 본 교단에 남아있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 교단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기 위함이다.

미국장로교(PCUSA) 알래스카/서북미 대회 한인교회 협의회

2015년 4월 16일